부산시, 지난해 外人 의료관광객 3만명 유치… '역대 최다'

2023년比 2.3배↑… 비수도권 1위
대만 의료관광객, 1840% 급증
SIT 조성 강조한 3대 전략 추진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3만 165명으로,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만 2912명 대비 2.3배(133.6%)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의료 관광객을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 1만 9748명보다 1.5배(52.7%) 증가한 실적이다.

이로써 시는 2026년까지 부산 의료 관광객 3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부산은 2023년 대비 전국 유치 순위가 상승하며 비수도권 1위를 처음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제주 ▲인천 ▲대구 순으로 의료 관광객이 많이 방문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별 부산 의료 관광객은 ▲일본(24.3%) ▲대만(23.9%) ▲중국(11.8%) ▲러시아 (9.5%) ▲베트남(6.3%) ▲미국(5.2%) 순으로, 일본이 2년 연속 부산 의료 관광 방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대만 의료 관광객이 2023년 대비 무려 1840% 급증한 점이다.

지난해 부산 의료관광 중국 비즈니스 상담회. /부산시

부산 의료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는 ▲피부과(40%) ▲성형외과(14.3%) ▲검진센터(11.2%) ▲내과통합(9%) ▲치과(5.7%)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해 피부과가 674%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어 ▲한방통합 170% ▲치과 156% ▲성형외과 127% ▲검진센터 98% 순으로, 경증 중심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피부·성형 이용자 비중 상승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내과통합 비중은 2023년 대비 15.3% 감소하며 그 순위도 하락했다.

시는 지난해 ▲'외국인이 가장 많은 찾은 의료기관' 선정 및 공동 홍보 ▲검진·뷰티·한방×비짓부산패스 특화 홍보 ▲일본·대만 타깃 유치기관 마케팅 지원 ▲중국 타깃 한국관광공사 공동 마케팅 집중 추진 ▲권역별 특화지역 활성화 지원 등으로 부산의료 관광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의료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한다.

시는 올해 '2025 부산 의료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수목적 관광도시(SIT)' 조성을 강조한 3대 전략으로 ▲의료 관광 유치 기반 강화(Strong) ▲융복합 차별화(Identity) ▲타깃 브랜딩(Targeting)을 추진한다.

시는 2025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의료 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공모 평가 1위로 확보한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총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 및 국제 의료 인증기관 양성 ▲총괄 안내 서비스 지원 ▲부산 의료 기술 홍보·마케팅 지원 ▲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치유·의료 관광 체험단 초청 홍보 여행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타깃 시장 진료과별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상의홀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전국 권역별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의 "산업은행 본사 부산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출발점 될 것"

'전국 권역별 합동 토론회' 개최
개정안 처리 촉구·공감대 형성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는 지난 7일 오후 2시 상의홀에서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과 공동으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전국 권역별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의 출발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상의가 주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은 목표인 5만 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지난달 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을 비롯한 영남,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 시민단체 대표의 공동성명서 서명 및 낭독, 안원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권역별 대표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첫 출발점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라고 명확히 선언하면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사천시, 115년 만에 행정구역 정비 추진

생활권 중심 구역조정 계획

사천시는 시민 생활 편의성과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약 115년 만에 행정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정구역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정된 것으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생활권 변동 등으로 실제 행정구역이 바뀌었으나, 공부상 변경되지 않아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지속됐다.

시는 효율적인 행정구역 정비를 위해 생활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행정구역 변경 정비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실시할 계획이며 1차년도 사업 대상은 12개 구역 172필지이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전남도, 3D프린팅으로 세라믹산업 육성

2년간 총사업비 15억 투자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세라믹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세라믹 소재를 활용한 3D프린팅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남은 국내 세라믹 분말 원료 시장의 40%, 산화알루미늄 국내 생산의 97%를 차지하는 핵심 지역이다. 특히 목포와 영암 일대를 중심으로 KC, 대한세라믹스 등 16개 세라믹 원료 소재 기업이 밀집해 세라믹 산업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2025년부터 2년간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해 ▲국산 세라믹 3D프린팅 장비 구축 ▲지역 세라믹 소재 활용 3D프린팅 상용화 기술 개발 ▲참여 기업 대상 3D 모델링 설계·교육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라믹 3D프린팅 기술은 정밀하고 복잡한 형상의 구현이 가능하며, 금형 없이 디지털 모델링을 통해 직접 적층 제조할 수 있어 공정 효율성이 높다.

또한 금속을 직접 절삭 가공하는 방식과 달리 금속스크랩 등 폐기물이 없어 친환경적이며, 재료비 절감 효과도 뛰어나다. 이 기술은 항공우주, 방위산업, 의료, 반도체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곽부영 전남도 기반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세라믹 3D프린팅 소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미래 세라믹 산업을 선도할 첨단 기업을 유치해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경북도, '항공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업종전환 지원… 부품 국산화 촉진

경북도가 '항공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2030년 대구경북공항 개항을 앞두고 전기·전자, 반도체, 방위산업 등 지역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 분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하고, 부품국산화를 촉진해 도내 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추진된다.

참여 기업 모집 분야 지원 규모는 ▲군(軍) 및 민간 항공 부품국산화 기술개발(품목지정형 최대 6000만원, 자유공모형 최대 4000만원) ▲기술고도화 및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화 지원(최대 1500만원) ▲시험평가 및 인증 지원(최대 300만원)이며, 항공기술분야 관련 컨설팅은 모집 기간과 상관없이 수시 접수해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복잡한 인증 절차와 초기 투자에 따른 부담 등 항공 분야의 높은 진입장벽을 고려해 진입 기반이 마련돼 있고 수요가 뚜렷한 군수부품 분야에 우선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공군 군수사령부가 협력해 군에서 필요한 품목을 지정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품목지정형'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지역 이모저모

경산시
'통합위임장 제도' 시행

경산시가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 신청부터 개발행위 허가, 지적공부 정리까지 하나의 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위임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토지 분할 신청 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업무를 처리할 경우, 측량을 신청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개발행위 허가 부서(허가과), 토지이동정리를 담당하는 토지정보과에 각각 별도의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경산시는 하나의 통합위임장을 작성하면 지적측량, 개발행위(분할), 토지이동신청 등 관련 민원 업무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산(경북)=김준한 기자

완도군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개막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지난 5일 개막했다.

올해 축제는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5일 개막식에서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청산 농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느림의 종 타종식, 나비를 유채꽃밭에 날리는 '나비야, 청산 가자!', 구들장 논에서 수확한 쌀로 떡을 만들어 나눠 먹는 '구들장 논 방앗간', 전복 치킨 '복닭복닭' 시식 등이 진행됐다.

올해 열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청산도에서 낮밤 없이 놀아보세!'를 주제로 ▲걸어보세 ▲낮밤 놀아보세 ▲기록하세 등 세 가지 테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포항시
기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항시가 2025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적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기술 컨설팅과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기술지원은 ▲IT&스마트팩토리 ▲계측&엔지니어링 ▲환경&에너지 ▲시험분석 ▲이차전지 등 8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포항(경북)=최지웅 기자 asdadx@

울산시
미얀마에 구호금 7000만원 지원

울산시는 지난 3월 28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얀마 국민을 돕기 위해 구호금 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16년 미얀마 만달레이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상호 교류단 파견 등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구호금 지원은 미얀마가 조속히 지진 피해를 복구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울산 시민의 위로의 뜻을 담아 전달한다.

/울산=이도식 기자